

시설과 사람들

2021 vol.86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행복은 삶이 끝나갈 때쯤이나 찾게 될 겁니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들의 합이 될 테니까요.
만약 삶은 순간의 합이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찬란한 순간을 잡으세요.
나의 선택을 옳게 만드세요.
여러분의 현재를 믿으세요.
순간순간 의미를 부여하면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 박웅현, '여덟단어' 중에서

부산시민공원 3색 빛축제 [나비의 비상]



CONTENTS

2021 Vol.86



발행처
부산시설공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174)

기획·편집
사회적가치실현팀 051.860.7924

홈페이지
www.bisco.or.kr

디자인
디자인에감 051.802.9191

PART 01 행복을 말하다

- 06 결산기사**
시민들이 직접 뽑은 2021년 10대 뉴스
- 12 ESG 경영**
ESG, 부산시설공단이 함께 합니다
- 16 특집기사**
응답하라, 공원! 부산시민들의 추억 속 장소를 찾아서



PART 02 시설을 말하다

- 20 시설특집**
새롭게 바뀐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 아트월 (feat. 부기)
- 22 기술혁신**
메타버스 광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26 현장속으로**
2021년 FW 라이브커머스 현장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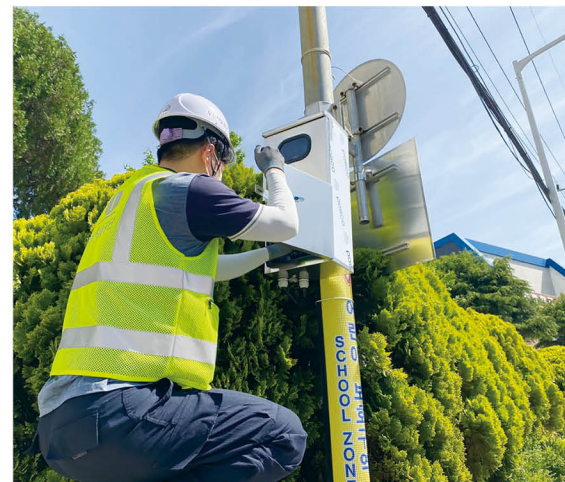
PART 03 기쁨을 말하다

- 30 노인일자리**
다시 찾은 청춘 〈노인일자리 수기 공모전〉
- 34 대학생홍보단**
시민참여플랫폼 영비스코 생생후기



PART 04 당신과 함께

- 38 시민참여**
추모, 그리워 떠오르다
- 42 청렴특파원**
당신의 일상에 스며드는 청렴문화
- 46 슬기로운 회사생활**
아무튼 출근! 비스코인의 하루 [도시시설팀 - 최상재]



PART 05 For you

- 48 공단사람들**
Good bye, 2021 내가 연말을 마무리 하는 방법
- 50 사회적가치**
꿈을 키우는 시간, 부산시설공단 청년 인턴을 소개합니다.



PART 06 뉴스더하기

- 52 소식**
공단뉴스
- 56 SNS**
SNS 속 부산시설공단
- 58 독자퀴즈**
사보 QUIZ
- 59 달력**
2022년 달력



시민들이 직접 뽑은 2021년 10대 뉴스

우리 공단은 시민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공단 시책을 펼치기 위하여 시민이 뽑은 10대 뉴스를 매년 선정해왔다. 올 한해는 어떤 소식들이 부산 시민을 행복하게 했는지 알아보자.

2021. 11. 10. - 11. 24. 동안
총 2,646명 참여



826명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SK 핸드볼코리아리그 통합 우승 달성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의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통합 우승이 826명(31.2%)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부산 시민이 뽑은 올해 공단을 빛낸 뉴스 1위에 뽑혔다. 올해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이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하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부산 시민들에게 큰 응원과 기쁨을 선사하였다. 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은 정규리그를 19승 1무 1패로 독주해 우승하였고, 삼척시청과의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내리 2연승으로 승리하여 리그 통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시설공단은 여자핸드볼팀의 활약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734명

유관기관 협력으로 지역
소외계층 나눔 실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공단이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훈훈한 온정을 나눈 것이 시민이 뽑은 부산시설공단을 빛낸 10대 뉴스 2위로 뽑혔다. 공단은 1월 관내 지역소외계층에 사랑의 쌀과 생필품 행복박스를 전하기 위해 부산진구청에 나눔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쌀은 지난해 부산시민공원 농협 기부금에서 첫 벼 수확한 것으로 부산진구와 함께 내달 남구에 전달할 분량을 포함해 총 1톤 상당으로 부산 시민공원 직원들이 약 3.5kg정도로 며칠 동안 개별 포장작업을 진행했다. 부족한 쌀은 부산 농협의 지원도 받았다. 3만 원 상당의 주요 생필품 19종으로 구성된 행복박스는 ㈜아성다이소가 힘을 보탰다. ㈜아성다이소의 후원은 이번 소외계층 나눔이 세 번째 지원이다.



708명

지역 기업과 손잡고 영도대교 도로노면
포장재 국내 기술 특허출원 따내



우리 공단이 지역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영도대교 도로노면 포장재를 국내 기술로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따낸 것이 26.8%의 지지를 얻으며 시민이 뽑은 뉴스 3위에 올랐다. 그동안 영도대교 포장재는 포장 보수 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단과 부산 지역 기업인 (주)새론테크가 포장재 공동 개발 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부착력과 내구성이 매우 우수한 도개교 포장 대체재 개발을 완성하여 특허출원을 마쳤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 지역 기업과의 협력 및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사회적가치실현에 앞장 설 것이다.

4위

697명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우리 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2등급)**으로 선정된 것이 시민이 뽑은 뉴스 4위에 랭크되었다.
우리 공단은 계획·실행·성과확산에 대한 7개 부문의 평가영역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특히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확산 노력 부문 세 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5위

662명

사랑의 헌혈 캠페인 전개



우리 공단이 **매해 꾸준히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이 시민이 뽑은 뉴스 5위에 뽑혔다. 올해 우리 공단은 상·하반기 헌혈 캠페인을 2차례 진행하였다.
코로나로 불안정한 지역사회의 원활한 혈액 수급과 안정화를 위하여 직원들이 헌혈에 동참하였으며 **헌혈증을 기부하여 사단법인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에 기증**하였다.

6위

522명

부산시설공단, 청렴 컨설팅 제도 도입



부산시설공단이 청렴한 공단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청렴 컨설팅 제도**가 17.4%의 지지를 얻어서 6위에 올랐다.
청렴 컨설팅 제도는 **불분명한 제도, 규정 등으로 의사 결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주고, 그에 따라 처리한 업무를 면책하는 제도이다.
우리 공단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7위

408명

두리발 차량 '사랑의 모금함'
직원 성금 보태 '사랑의 열매' 전달



우리 공단은 팀 문화 근절과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두리발 차량 내에 사랑의 모금함을 설치하여 이용 고객인 장애인들의 자발적 기부**를 이끌어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시작하였다.
공단이 힘을 보태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408명의 시민이 지지를 보내며 공단을 대표하는 뉴스 7위에 자리하였다.

8위

383명

41회 장애인의 날 맞아
두리발 차량 무료 운행



우리 공단은 4월 20일 새벽 0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결과 두리발 차량 116대를 활용하여
총 943건이 무료로 운행되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방안을 지속적
으로 모색할 것이다.

9위

332명

2020 일자리 정책 추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우리 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속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2017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4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하였으며, 특히 **전환
근로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았다.

10위

203명

시민공원,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예술처방전 전달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에 더욱 제약을
받고 있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부산시설
공단 직원과 시민공방작가들이 힘을 모은 이야
기**가 시민이 뽑은 뉴스 10위에 뽑혔다.
코로나19로 자칫 우울해질 수 있는 백혈병
어린이와 가족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부산시민공원이 문화예술촌 공방작가 재능
기부로 제작된 **예술체험키트**가 전달되었다.
한편, 우리 공단은 지난 10년 동안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꾸준히 헌혈증을 기부하고 집수리
봉사 등을 시행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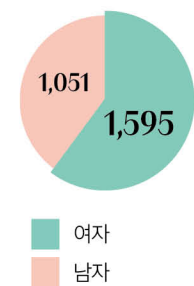
★★★★★
아차상

아쉽게 10위 안에 못 든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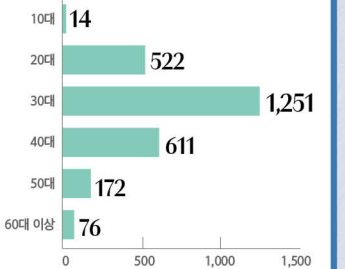
- 11위 부산시민공원 제76회 식목일 맞아
장미 805주 식재 200명
- 12위 부산시민공원,
시민꽃밭 가꾸기 프로그램 개최 196명
- 13위 부산시설공단, 유관기관 협업
봄맞이 환경 캠페인 전개 181명
- 14위 부산시설공단,
용두산공원·금강공원 행복정원 조성 145명
- 15위 부산시설공단, 제1회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특별상 수상 144명

응답자 정보

성별 분포도



연령 분포도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1,595(60.3%)명, 남성 1,051(39.7%)명
으로 여성의 비율이 우세했으며, 연령 분포도는 10대 14명
(0.5%), 20대 522명(19.7%), 30대 1,251명(47.3%), 40대
611명(23.1%), 50대 172명(6.5%), 60대 이상 76명(2.9%)이
조사에 참여함



[ESG, 부산시설공단이 함께 합니다.]

부산시설공단 ESG 경영 중장기 전략 추진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급변하는 21세기 경영환경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커졌다. 또한 정부 역시 사회적가치실현과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ESG 경영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에 우리 공단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 어떻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글_ 김형, 박우진(미래전략팀)

ESG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앞 글자를 딴 기업의 비재무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가 기업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 급격한 기후변화, 각종 비리사건 등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이제 기업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비(非)재무적 성과'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때 고려해야하는 비재무적 요인이 바로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이고, ESG를 고려한 경영 전략을 ESG 경영이라고 한다.



ESG 전략 개념

ESG 경영이란 기업의 존속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전략

Keyword 1 Environmental (환경)	환경오염 예방, 에너지 효율,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 감축 등
Keyword 2 Social (사회)	고객만족, 공정한 근로조건, 안전 및 보건, 사회공헌 등
Keyword 3 Governance (지배구조)	이사회 다양성 및 의사결정구조, 청렴, 기업윤리, 공정거래 등



[우리 공단은 ESG 경영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우리 공단은 공단 ESG 경영비전 수립을 통해 공단의 중장기 경영방향을 설정하고, ESG 경영 12대 전략과제 및 24대 실행과제 선정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ESG 키워드별 세부 추진과제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류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와 건강한 기관경영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 ESG 경영 중장기 추진전략 체계도

ESG 비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ESG 목표	2030 온실가스 감축량 50% 달성, 중대재해 ZERO, 종합청렴도 1등급

전략방향	환경경영 (Environmental)	사회책임 (Social)	지배구조 (Governance)
전략과제	①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⑤ 동반·상생협력 확대	⑨ ESG 도입 및 확산
	② 에너지 이용 합리화	⑥ 재난·안전체계 고도화	⑩ 청렴문화 확산
	③ 저탄소 그린에너지 확산	⑦ 일자리 창출 및 나눔	⑪ 공정거래 문화 확립
	④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⑧ 인권경영구현	⑫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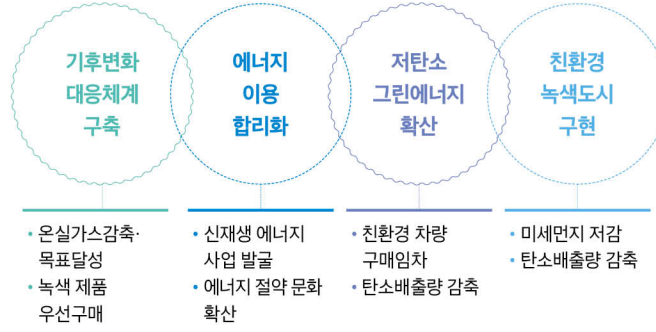
중장기 로드맵	전 환 [2022년]	내재화기 [2023년~2024년]	공유·확산기 [2025년~]
	Top-Down방식 ESG 경영	Bottom-Up 방식 ESG 경영	ESG 경영사례 타 기관 공유 및 확산
	ESG 진단 및 개선목표 수립	ESG 경영 추진체계 고도화	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지속력 확보
	중장기 ESG 추진계획 수립	중장기 과제발굴 및 추진	타 기관들과의 ESG 공동목표 수립 및 실행



Environmental (환경경영)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등 친환경 시책에 발맞춰 공단은 과학적 모니터링 기반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에너지 효율 증대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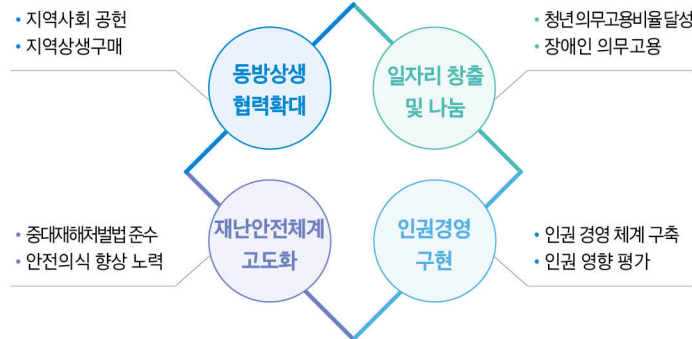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Social (사회책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등 공기업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장기고용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재난 대응체계 고도화 등 사회책임 완수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더불어 함께하는 동반성장



Governance (지배구조)

공기업 부동산 투기 사건 등으로 기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 상승 및 부패 근절의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소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외부 전문가의 경영시책 수립·점검에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 문화 조성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ESG 도입 및 확산

- ESG 추진 TFT 구성 및 운영
- ESG 평가위원회 운영

공정거래 문화확립

- 청렴 컨설팅 제도 운영
- 청렴옴부즈만 구성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교육
- 이해충돌방지 노력

청렴문화확산

- 부패영향평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부산시설공단, ESG와 함께하다!

부산시설공단은 사실 오래전부터 ESG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 E**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공원을 잘 관리하는 것
- S**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 교량을 만드는 것
- G**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조직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ESG를 위한 가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부산의 공원, 도로, 교량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공단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활동들이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사적인 ESG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공단의 지속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그래야 비로소 시민들이 바라는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공단은 ESG 경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실행과제별 관계부서 TFT를 구성하여 관계부서와 사업조직의 전사적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내부평가(BSC) 지표 연계를 통하여 공단 ESG 경영 실행과제들의 원활한 성과관리 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내년 2022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1992년 주차관리공단에서 시작한 공단이 직원 1,200여 명의 부산을 대표하는 시설관리 공기업이 된 것처럼, 앞으로 30년간 공단이 초일류 공기업이 되기 위해 ESG를 통해 달려 나갈 것이다.

ESG, 부산시설공단이 함께한다!



응답하라, 공원!

부산시민들의 추억 속 장소를 찾아서

우리 공단의 공원·유원지의 역사적 가치 발굴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추억 공유를 통한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시설공단 공원·유원지 추억의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현재와는 다른 부산시설공단의 모습과 그 속에 녹아있는 부산 시민의 추억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편집_백주영(공원기획팀)



제 목 | 그때도 지금도

출품자 | 김소영

옛 사진을 보다보면 최근에도 종종 가는 공원들인데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낯설고 신기하다. 어릴 적의 내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하면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면서 기분이 묘하다가도 또 그때와는 다른 모습이지만 여전히 공원이 그대로 있다는 게 참 좋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추억이 가득한 공원들이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다.

제 목 | 어린시절 내 놀이터

출품자 | 이소미

초음동에 살던 우리 식구는 이모네와 함께 어린이회관에 자주 놀러갔었는데 저 날은 외할머니도 동행해서 어버이날을 어린이회관에서 보냈었습니다.(사실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진 않아요.) 저 오르막길이 그리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많이 변형되어 금방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 목 | 어린이대공원 입장

출품자 | 성진실

지금은 사라진 성지곡랜드 앞에서 촬영. 어려서 놀이기구를 탈 수 없기에 사진만 찍었다.



제 목 | 위드 어린이대공원

출품자 | 김현정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동생. 지금은 없는 철문 이랑 심볼이던 어린이대공원 간판과 매표소도 보입니다.





제 목 |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는 놀이터로 유치원 소풍

출품자 | 이소미

7살 때 성아유치원 소풍을 갔던 곳으로 저기서 엄마랑 게임도 하고 밥도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왼편에 태권브이 미끄럼틀은 저곳의 시그니처인데 아쉽게도 만나왔네요. 저 공룡 구름다리라는 다리가 후덜거려 엄두도 못 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목 | 유치원 견학

출품자 | 김성민

1997년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찍은 유치원 견학사진. 이제는 모두가 어른이 되어있겠죠?



제 목 | 빙글빙글 회전그네

출품자 | 엄지운

지금은 철거되고 없는 금강공원의 놀이시설 중 하나인 회전그네를 누나와 타던 제 모습입니다. 공모전 사진을 찾는다고 오랜만에 예전 앨범을 꺼내서 추억여행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 | 모자상 아래서

출품자 | 최미희

태종대 모자상 아래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제 목 | 추억 속 어린이대공원

출품자 | 김고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방문했던 어린이대공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목 | 응답하라 1996

출품자 | 하수민

1996년 여름, 용두산公園으로 유치원 소풍가다!



새롭게 바뀐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 아트월!

feat. 부기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의 미디어 아트월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미디어 아트월은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의 좌우 엘리베이터 입면에 2개의 타워를 설치하고 타워 사이 벽면에 LED 브릿지를 연결한 세계 최초 좌우 비대칭 연계형으로 구축되었다. 부산만의 차별화된 도심 문화 예술공간으로 변화한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 아트월 현장속으로 가보자.



bepatform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미디어 아트월 전경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부산미디어아트 콘텐츠는 총 17개로 관광과 웰컴 기능인 **킬러 콘텐츠**,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인터랙션 콘텐츠**, 계절별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즌 콘텐츠**, 화려한 아트 중심의 **에피소드 콘텐츠**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킬러 콘텐츠에는 '틱톡', '고등어 날다', '웰컴 투 부산'으로 구성돼 부산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며, 인터랙션 콘텐츠에는 '링크웨이브', '부산인사이드', '빛의 하모니'로 구성돼 광장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그림, 문자를 LED 화면으로 전송하는 형태의 시민참여형으로 연출된다. 시즌 콘텐츠에는 사계절뿐만 아니라 연말연시, 추석, 설 명절에 부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환영 인사가 송출되며, 에피소드 콘텐츠에는 '트립위드림', '안녕 니하오 봉주', '부산과 함께 춤을', '영화 속으로' 등 스토리텔링형 연출로 구성됐다.

우리 공단은 미디어 아트월을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선보여 부산유라시아플랫폼이 부산시민의 일상 속 품격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변화하고,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산시 대표 마스코트 부기도 참석



Metaverse 메타버스 광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메타버스의 광풍이 무섭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META)로 변경하고 메타버스 서비스를 공개하였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도 메타버스 흐름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아직은 알쏭달쏭한 메타버스.
과연 메타버스는 무엇이며, 우리 공단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낯설지만 익숙한, 사실 늘 우리와 함께했던 메타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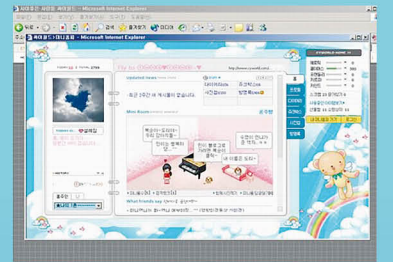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를 아는가.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상상’을 통하여 특별한 순간을 꿈꾸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 영화처럼, 2021년 지금 우리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바로 작년부터 광풍으로 불어오는 ‘메타버스(Metaverse)’의 흐름이다. 뉴스를 잘 보지 않아도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화제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최근에 매체에서 이슈로 등장하긴 했지만 메타버스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속 가상세계로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가상 현실(VR)보다 훨씬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SNS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아바타 꾸미기, 2020년 광풍을 일으킨 동물의 숲 역시 메타버스의 초기 모델로 불린다. 특히 싸이월드는 ‘도토리’라는 전자 화폐 수단까지 사용하였으니, 사실상 메타버스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 미국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소설 속 등장인물은 아바타를 빌려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로 들어간다. 주인공은 피자배달부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천재 해커이자 영웅으로 활약한다. <스노 크래시>의 주인공처럼 오늘날 우리는 메타버스를 통하여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가상 세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메타버스란?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 처음 등장하였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사실 1세대 메타버스는 우리가 아니었을까?



그 시절, 최고의 사이버 소통공간이었던 싸이월드



현재 메타버스의 초기 모델이라 불리는 동물의 숲
[이미지 출처 : 구글]



메타버스,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이미 Z세대(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메타버스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 세계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는 미국 어린이의 3분의 2가 사용하고 있고, 하루 사용시간은 156분으로 페이스북의 하루 체류시간인 21분보다 훨씬 많이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미국 10대들의 절반 이상은 현실 친구보다 로블록스 내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하니, 가히 메타버스 신드롬이라 할 만하다.

이렇듯 메타버스의 광풍에 빅테크 기업들은 잇따른 출시표를 던지고 있다. 아예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MS, 텐센트, 화웨이 등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제페토 출시를 통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점유율을 선점한 네이버의 제페토 뿐만 아니라, SKT는 초실감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이프랜드’를 올해 출시하였고, 한컴그룹, LG 유플러스 등 속속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뛰어들고 있다.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

[이미지 출처 : 구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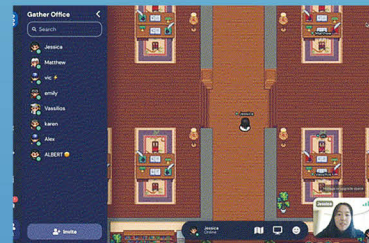
대한민국 대표 K-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제페토는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Z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2018년에 출시된 제페토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수를 2억 8000만 건을 기록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페토는 얼굴인식, AR, 3D 기술 및 증강현실을 활용한 입체적인 가상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메타버스 열풍의 시초, 로블록스(Roblox)

2004년 데이비드 바수초키와 에릭카셀이 설립한 Roblox Corporation에서 만든 게임 플랫폼으로 현재 가장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로블록스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8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역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낮은 장벽과 스스로 게임을 개발하고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구조로 미국내 이용자 3분의 2 가량이 미국 9~12세 어린이로 구성되어 있다.



화상회의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게더타운(Gather Town)

게더타운은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게더(Gather)가 개발한 메타버스 화상회의의 플랫폼이다. 2020년 5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게더는 팬데믹으로 인한 화상회의의 플랫폼이 급증하면서 떠오르는 메타버스 화상회의의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1년도 안돼 4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게더타운은 파워포인트, 구글폼 등 업무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가능하면서 화상회의의 시스템에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우리 공단의 자세

이에 우리 공단 역시 디지털 초혁신 신산업의 선도적 반영과 메타버스 플랫폼 확대 운영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공단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도입하여 시민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도록 준비 중이다.

또한 공단의 업무 역시 메타버스와 접목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설공단의 메타버스 추진계획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대시민 서비스 개발

인지도가 높은 제페토 플을 활용한 메타버스 부산시민공원 구축

공단 주요 관광명소 메타버스 공간 조성

공단 주요 랜드마크 시설을 가상으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구현

비대면 화상회의를 위한 메타버스 오피스 시스템 운영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체 공단 업무용 가상 오피스 구축

공단 '메타버스 안내홍보실' 공간 구축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하여 가상 공간안에 홍보실 공간 구축을 통해 시민과 소통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을 위한 3D 모델링 구축

오픈소스 3D 그래픽 제작 소프트웨어 활용으로 각종 지도, 랜드마크, 캐릭터 3D 모델링 구축

상가기획팀 신입직원 김선기 주임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후기

2021년 FW 라이브 커머스 현장 속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지하도상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우리 공단은 라이브 커머스 등 소비문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FW 라이브 커머스는 1,5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데 성공하였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FW 라이브 커머스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자.

글·사진_ 김선기(상가기획팀)



준비과정

10월 21일, 올해 하반기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계획한 날이다.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우리 라이브 방송 일정도 미뤄졌다. 일주일 후인 27일 수요일이 대망의 방송일로 정해졌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참여 점포를 모집하는 일이다.

SNS를 활발히 하는 점포, 스마트 스토어 조회수가 높은 점포를 선별하여 라이브 커머스 참여를 제안하러 다녔다. 나의 바램과는 달리 점포 상인들은 적극적이지 못했다. 평소에 눈에 띄는 점포를 몇 군데 봐 둔 터라 그곳만큼은 꼭 설득해서 참여시키리라 다짐했다. 그렇지만 참여하겠다고 한 곳은 거의 없었다. 마지막 희망인 여성의류 전문매장 ‘치오’(서면몰 4열 5-1호)에 방문했다. 사장님이 운송장 스티커 작업이 열심히셨다.

“부산시설공단입니다. 이번에 라이브 커....”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지금 너무 바쁘다는 답을 받았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나중에 다시 올게요!!”하고 나왔다. 몇 군데 더 돌아보고 다시 찾아가서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좋은 기회라고 설득을 마쳤다. 총 11개 점포가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그 중에 치오도 있었기에 나의 노력이 빛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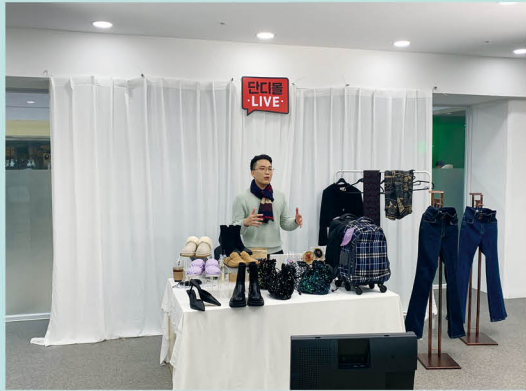
진행과정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다. 공단 직원들에게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홍보 해놓은 터라 초반 시청자 수가 짹짹 올라갔다. 방송시작 10분 만에 200명을 돌파하면서 입꼬리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다. 500명이 넘어 가는 순간에는 시청자 수에 대한 걱정마저 날아갔다. 오전에 1부, 오후에 2부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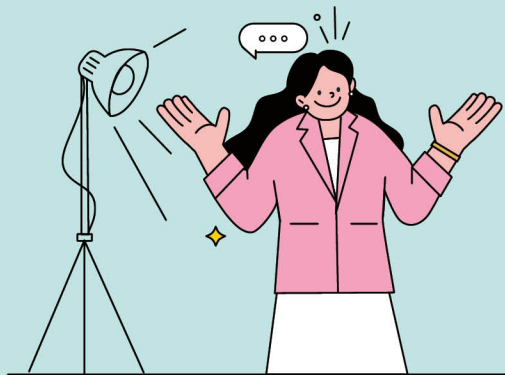
1부에 건강식품인 노루궁뎅이버섯차를 소개하는데, 반응이 좋아서 진행자가 직접 마시며 상품소개를 했다. 민트초코(?)를 먹은 것처럼 청량감이 느껴진다고 했을 때는 웃음을 자아내었다.

2부에는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데, 노루궁뎅이 차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한 잔 더 우려내 중간중간 마시면서 진행을 했던 점도 볼만했다. 시청자의 실시간 댓글에 따라 라이브 방송도 융통성 있게 진행되었다.



웃음을 자아낸 명장면은 또 있었는데, 바로 스카프 상품을 소개할 때였다. 진행자가 평소 스카프를 잘 하고 다니지 않아 두르는 방법을 잘 몰랐다. 스카프를 소개하면서 진행자가 스스로 메었는데, 그 모습이 겨울연가의 윤사마와 목 킷스 그 어디쯤 되는 것 같아 보였고 정말 재미있었다. 결국 촬영 스텝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방송을 할 수 있었다.

2부에서 치오 제품이 소개 되었는데, 대표님이 방송에 출연해 직접 상품을 착용하고 소개를 진행했다. SNS도 열심히 운영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떨지 않고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또한, 상품 모델도 직접 하실 정도로 여신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이번 라이브 방송에 큰 역할을 했다. 이때



시청자 수가 급증했다는 비공식 통계가 있을 정도였다.

15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이 종료 되었는데 15시가 되었을 시점에는 시청자가 1200명이 넘어섰다. 그러면서 네이버 라이브 홈페이지 '패션' 부문에 5위권까지 진입을 했고, 순위가 높아지면서 유입되는 시청자가 더 많이 늘었다. 종료하기 직전에는 1500명 정도 되어서 이대로 종료하기가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마무 리

온라인 라이브 판매 방송이 각광 받음에 따라 여러 매체가 생겼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객들에게 찾아갈 생각이며,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부산 지하도상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년, 더 발전적이고 재미있는 라이브 커머스로 돌아올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무엇보다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커머스 현장 속으로' 글을 마친다.

지하도상가 이제 온라인으로 한디 즐겨자!

부산지하도상가 온라인 쇼핑몰 단디쇼핑몰

market.bisco.or.kr로 접속하세요.

아래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인식하면 더 쉽게 접속할 수 있어요!



다시 찾은 청춘 <노인일자리 수기 공모전>

우리 공단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가치를 제고하고,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1년 공단 노인일자리 사업 수기 공모를 추진하였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단 노인일자리 사업 수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함께 보자.



진정한 봉사란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김 윤 기(남구시니어클럽)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근무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노인일자리로 채용되어 1, 2월은 강추위와 싸웠고,
현재는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숙자도 계도해야 하고, 선별 진료소 주차관리도 해야 하는 등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노인일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노숙자 계도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무하기 전까지만 해도 노숙자란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 인생의 종착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남의 일로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속에 들어가서 대화해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면서 노숙자의 애환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숙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주거지가 등록되어있어 최저 생계
비가 지급되지만, 다른 노숙자는 말소되어 현금이 지급되지 않아
세 끼를 해결하기 힘들어 봉사단체 등에서 무료 급식으로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을 목격하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주차 근무도 애로점이 참 많습니다.
반드시 허가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데도 무턱대고 들어오려고
하는 운전자, 안에 주차된 차량은 뭐냐며 따지는 운전자에게
일일이 친절히 답변은 물론이고, 운전자, 여행객, 행인 등이
부산역 주변 주차장, 지하철, 호텔, 음식점, 음식점 등과 부산역



10월 10일





내 음식점, 분실물센터, 특송, 출입구 등 모든 장소를 문의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주변 지리를 잘 파악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안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40년 가까이하면서 나름대로 민원인에게 친절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봉사란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60대 중반이 되도록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는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제대로 보살피고 있는지도 생각해보면서 저도 깊이 반성해봅니다.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근무하게 된 동기는 함께 근무하게 된 동료분들과 부산역 시설공단 담당부서 팀장님과 담당자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근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잘못한다는 질타보다 격려와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여행객이 찾아오는 부산의 얼굴인 부산역!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 근무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어려운 여건을 견디며 큰 보람도 함께 가슴속에 심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부산역 플랫폼에 근무하는 일자리는 단순한 업무보다는 체력적으로 때로는 머리를 써야 하는 어려운 일이지만 한 달, 두 달 경력이 쌓이면서 숙달되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일자리와 함께 뒤늦은 제2의 인생을 산다는 색다른 경험으로 힘들다는 마음보다 보람을, 불행보다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글을 쓰게 해 준 부산시설공단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일을 한다는 것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이

김 현 규(남구시니어클럽)

세월이 참 덧없이 빠릅니다. 내가 1945년생이니 벌써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위에선 말들 합니다.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긴 시간이라 느끼고 있을 때, 아는 지인이 서대신동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한번 가보랍니다. 일자리도 많고, 자기 체형에 맞게 고를 수 있답니다. 당장 찾아가서 일자리 목록을 보니 내 집에서 걸어서 5~10분이면 갈 수 있는 남향대교 친수공간 근무가 조건도 딱이다 싶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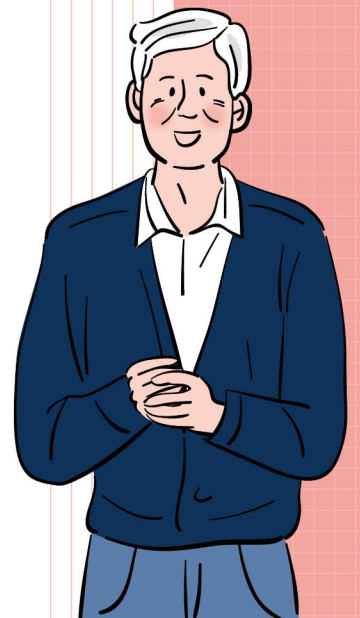
인원 6명을 선발하는데 정원이 넘었고, 그래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행운이 찾아와 2020년도부터 인원이 12명으로 증원이 됐고, 2기에 내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일을 한다는 것이. 벌써 2년째 기쁜 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조에 3명씩으로, 특히 우리 조 3명은 맘이 잘 맞아 웃으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일 일하고, 5일 휴식입니다.

체력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3번 중 1번은 영도 쪽 친수 공간으로 왕복으로 걸어서 근무하는 게 나의 체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오가며 대교 위 인도에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진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바다에 엄청 큰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오염이 겹나서 우리 조는 오가며 쓰레기 청소도 겸합니다. 동료 2명에게 얘기 했을 때 좋은 일이라며, 우리라도 동참해서 하면 별일도 아닌 것 같지만 맘이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 부모들과 도시락을 준비해서 가족 나들이를 나온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여학생이 할아버지 수고한다며 곱디고운 고사리 손에 쥐어진 음료수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맘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집에 냉장고에 며칠을 두고 그 소녀를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좋게 바라보면 참 좋은 세상입니다. 여기 이 직장에 우리 조 3명이 같이 오래오래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집 가훈인 “참스럽게 살자”처럼.



시민참여플랫폼 영비스코 생생후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인 11기 영비스코가 장장 5개월 동안의 활동을 끝내고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 공단의 대표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공단을 알려온 6명의 인재 중에서도 최우수와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강영미, 최민창 학생의 활동 소감을 들어보자.

글·사진 강영미, 최민창

영비스코 최우수 활동자

강 영 미

‘부산 시민으로서 누리는 행복을 넘어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
‘개인 미션과 팀 미션을 수행하며
부산시설공단을 비롯해
부산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

안녕하세요? 저는 영비스코 11기로서, 지난 5개월간 부산 시설공단 대학생 홍보단으로 활동한 강영미입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며, 그 누구보다 부산시설공단을 응원하고 있는 대학생이자 11기 영비스코라고 단연코 자신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의 로고와 함께 ‘Young Bisco’가 적힌 단체 유니폼을 입고 발대식 단체 사진을 찍던 게 5개월 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비스코로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여 가장 먼저 들어간 동아리가 ‘사진 동아리’였습니다. 자연스레 부산시민공원, 어린이 대공원 등 부산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찾아 출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출사를 다녔던 장소들을 관리하는 곳이 ‘부산시설공단’임을 알고 영비스코 11기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산의 명소와 시설들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인,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영비스코 팀원들과 함께 앞장서서 홍보할 자신이 있었기에 고민 없이 바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부산시설공단’과 하나!**”

영비스코로써 활동하며 크게 개인 미션과 팀 미션으로 나누어 활동했었습니다. 개인 미션으로는, 공단을 홍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진행했었습니다. 저 또한 ‘부산시설공단’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접하고 알아갈 수 있었던 활동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사업소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미션을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제안을 드릴 수 있었던 점에서 **도시발전에는 앞장서는 부산시설공단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영비스코 중에서도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던,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의 ‘반부패 제도 홍보’에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직접 지역사회에 이러한 제도를 홍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기도 했던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도전적이고,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

저는 영비스코 활동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활동이라면 바로 이 ‘팀별 공단 홍보 영상 제작’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도전적이고 새로운 경험이었고, 앞으

로도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활동이었습니다. 저희 3조 팀원들과 함께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스토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설레었던 활동이었는데요, 유명한 노래 ‘범 내려온다’를 배경음악으로 춤을 따라추며 총 7군데를 하루 만에 돌아다녔었습니다. 다 같이 모였던 날, 하필 비가 오는 바람에 형형색색의 비옷을 사서 입고 춤을 췄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그렇게 구름 가득한 하늘 아래 비를 맞으며 팀원들과 처음 찾아간 곳은 서면 지하도 상가였습니다. 분수대가 있는 지하광장에서 팀원들과 처음으로 춤을 맞춰보고 그 모습을 동영상에 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에 앉아계시거나 지나가시는 많은 시민분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춰본 것은 제게 처음 겪어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짜릿함과 숨겨뒀던 부끄러움은 정말 색다른 느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어린이 대공원, 부산시민공원을 찾아가 춤춘 영상을 남기고, 시민공원에서 마주했던 부산 시설공단 관리자님과 함께 동작을 맞춰본 후 홍보 영상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선뜻 나서서 함께해 주신 관리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사전 허락을 받아 한마음 스포츠센터의 대강당과 수영장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저녁에는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을 방문하여 LED 조명을 정식으로 공개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홍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많은 관리자분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일치기로 다녔던 여러 장소들 외에도 ‘두리발’을 홍보 영상에 담기 위해 주변을 샅샅이 둘러보았고, 운이 좋게도 여러 차례 정차되어 있는 두리발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에 계셨던 부산시설공단 관리자님께 허락을 받아 두리발 앞에서 또 색다른 춤들을 영상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부산시설공단의 많은 분들이 반겨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더욱 힘을 내서 홍보 영상 촬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굿은 날씨에도 하루 종일 함께 돌아다니며 춤을 춘 저희 3조 팀원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부산시설공단 영비스코 11기로써 활동하며 좋았던 점을 3가지로 요약해 보자면, ‘부산 시민으로서 누리는 행복을 넘어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 ‘개인 미션과 팀 미션을 수행하며 부산시설공단을 비롯해 부산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좋은 팀원들과 함께하며 소중한 인연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영비스코로 활동하는 5개월간 여러 미션들을 수행하고 공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부산 시민뿐 아니라 부산의 시설들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의 행복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고 보람찬 경험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 5개월간 함께 활동해 준, 우리 3조 부원들이 있었기에 소중했던 경험들이 더욱 빛이 나는 경험들로 남는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의 꽃은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팀원들을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어서 잊지 못할 홍보단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개월간 부산시설공단 영비스코 11기로 활동하신 모든 대학생 홍보단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옆에서 지켜봐 주셨던 담당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늘 그 누구보다 부산시설공단을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NG BISCO

영비스코 우수 활동자 최민창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산시설공단 로고가 어딜 가든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두리발을 보면

나도 모르게 반가워졌고,

광안대교에 가면 부산시설공단 사업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설공단 대학생 홍보단 11기 최민창입니다.

군 복학 이후 광고홍보에 관심이 생겼고, 때마침 영비스코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서를 쓰기 위해 사보, 기사를 찾아볼수록 영비스코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부산시설공단,

큰 품을 가진 부산시설공단을 제대로 홍보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지원서, PPT를 만들었고 감사하게도 영비스코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잊지못할 댄스의 추억!”

8월 ‘부산시설공단 홍보 영상 과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범 내려온다’를 모티브로 홍보영상을 만들었는데 조원들 모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 경험이 없어서 서면 지하상가 구석에서 쭈뼛쭈뼛 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광안리, 부산역에서 춤을 출 때는 신이 나서 강강술래도 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촬영을 허락해주신 스포츠 센터 관계자님, 기꺼이 출연해주신 시민공원 관리자님, 유라시아플랫폼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초대해주신 과장님까지.

부산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비를 뚫어가며 7곳의 사업소를 방문했고 장마와 습기를 머금은 우리의 영상은 우수영상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시설공단 사업소 개선방안 제출도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유라시아플랫폼과 서면지하상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실 지하상가는 대상 사업소가 아니었지만, 애착이 가는 사업소라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에 관련된 자료를 찾고 대안을 만들어갈수록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을 머금은 장소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서포터즈 활동 이후에 일종의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부산시설공단 로고가 어딜 가든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두리발을 보면 나도 모르게 반가워졌고, 광안대교에 가면 부산시설공단 사업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후유증 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다시지원하고싶을만큼후회없는경험”

코로나19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활동 범위가 아쉬웠습니다.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여름 태풍 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관리자분들, 두리발 동행 등 현장의 땀방울을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컸는데 그렇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단 담당자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아쉬움을 품고 집으로 향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록 영비스코 임기는 끝났지만, 기회가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다시 지원하고 싶습니다.

사보에 간절함과 애정을 담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시설공단의 모든 가족분들, 영비스코 담당자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글을 줄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추모! 그리워 떠오르다

부산추모공원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추모 시·편지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떠난 이들을 향하여 애뜻하고 그리운 마음으로 꼭꼭 눌러 쓴 시민들의 사연을 함께 만나보자.
편집_ 김진영(추모공원사업소)

바보엄마

또
또 바라~
또 웃는다.

이 못난 녀미 그리도 좋소?
그래 애먹이고 지 맘대로인데, 뭐가 그래 좋소?

어린 6남매 남겨놓고 혼자 훌훌 가신 아버지도
단 한번도 밋다 소리 안하고~
그 젊은 나이에 혼자되어 여섯놈 다키워 시집장가 보내도,
힘들다 소리 한번 안하고~
내만 보면 뭐가 그래 좋았소?

오늘 아버지 만났소?
욕도 실컷 쯔 하고 뉘두리도 밤새 쯔 하소.
밤늦도로 할 욕 하다하고
아버지 옆에서 편하게 한숨 자소.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비린내 나는 옷쯔 입지말고
양말 기운 거 쯔 신지 말고 이쁜거 쯔 입으소
아버지 팔짱끼고 경치 좋은데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쯔 하소.

마이 죄송하고 마이 고맙습니다.
아버지 없는 50년 평생을 이 못난 늬 하나 믿고,
가진 거 먼지 한톨 안남기고 다 주고 가셨네.
불어 있던 살도 내 다 주고 갔소?

와 그래 말라뻘소?
그래 애먹이는데, 쯔 때리기도 하고 욕도 쯔하고 그라지,
뭐 이뿌다고 전부 내말이 다맞고 다 잘한다 하고~
그, 뭐 맨날 내만보면 실실 웃었소?
박스 주우려 다니지 마시라고 큰소리치도 웃고~
집에 모아다 놓은 박스 다 갖다 버려도 웃고

아이구 바보야~
엄마는 바보요?
밋으면 밋다, 싫으면 싫타 쯔 하지.
맨날 설설 웃기만 웃고~
그때 엄마집에 가서 박스 모은거 다 버리고
고함질러서 진짜 미안하요.
내가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힘들게 자꾸 주우려 다니니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래서~
엄마 밋어서 그런거 아니요.
알지요 엄마?

오늘 엄마 가는데 그 때 소리지르게 너무도 마음에 걸려
서 모진 이놈도 눈물이 마이 났소.
다른 사람들이 슬픈척 한다 할까봐~
억지로 우는 척 하다가 싶을까봐~
3일 내내 목구멍을 놀리며 참았는데~
오늘은 나도 마이 울었소.
엄마가 지금 가 있는 곳 나도 갈 수만 있다면

한번 가서 보고 오고 싶소.
아버지는 만났는가?
둘이 계신데가 지낼만은 한가?
편안하고 재밌게 사는거 보고만 와도
가슴 중간에 박힌 돌덩이가 쯔 내려갈거 같은데~

아이구 고마~
내 편할라고 엄마, 아버지 살만한 곳이라 믿을라요.
이제 마음껏 설설 웃고, 하고 싶은거 다하고 그래 사소.
엄마가 모든 거 다주고 키워준 나도 벌써 57살이요.
엄마 덕분에 나는 잘살고 잘지내고 있소.
엄마도 쯔 내걱정, 다른 자식 걱정, 손주들 걱정
고만쯔 하고 이제 쯔 재밌게 사소.
엄마 묵고 싶은거 묵고 가고 싶은데 가고~
화나면 화도 쯔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도 쯔 하고~

우리 바보 엄마,
고맙소,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고맙고 고맙습니다.

엄마~
엄마하고 지금 딱 한번만 둘이서 손잡고,
전에 엄마 잘묵던 송도에 연한갈비 한번만 묵고 싶소.
둘이서 바닷가 산책 한번만 더하고
엄마 벤치에 앉아 있으면, 커피 트럭가서
우리 엄마 묵게 믹스커피,
설탕 한숟가락 더 넣어 달라고 사서 들고 가면,
둘이서 맛있게 묵고 그라고 가면 안되겠소?
고기 맛있게 묵고 계산하는데 옆에 서서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다고” 투정부리시던
귀여븐 우리 엄마~
딱 한번만 더 같이하고 가소. 엄마.
나도 세상에 무서븐게 별로 없는데,
오늘은 뭐가 무서븐지 쯔쯔 무섭네요.
6년을 병원에 넣어 있어도
엄마가 이 세상에 있어서 든든했는데.

그렇게 늬어 있게 한것도 내 욕심인 듯 해서
또 마이 미안하요.

엄마~
알지요?
내가 엄마 무지하게 좋아하는거?
부끄러워서 말은 못해도 엄마 손까지 끼고 걸을 때
내 마음 쯔쯔은 알았지요?
고기쌈 너무 크게 싸준다고~
그래도 꾸역꾸역 웃으면서 다 묵어주고
귀엽게 투정부리던 우리 엄마~
그래도 좋았지요?
내가 말로는 못해도 내가 엄마 마이 좋아하는 거
쯔쯔은 알았지요?

엄마~
나는 엄마가 바보 아닌 쯔 잘 압니다.
밋은 짓을 해도 용서해서 웃어주시거였고,
화를 내도 사랑하는 쯔 아니까 웃어주시거였고

우리 바보 엄마~
에이 이 바보야~
쯔 엄마를 위해 살다가지.
뭐 그리 잘난 아들이라고 어째 그래 잘해만 주셨소.

엄마
우리 엄마

고마버요
진짜 고마버요 엄마.

바보 우리엄마
고마버요

2021년 7월 14일 추모공원 벽식봉안담에서
사랑하는 아들 성태가

가장 '소중했음' 금쪽의 하룻밤

“오늘 하루는 자고 가면 안 되겠니?”

허리가 딱 반으로 굽어 땅만 바라보던 엄마, 갑자기 최대한 윗몸을 들어 올리며 애타게 나를 쳐다보시네요. 그러나 또 꿈입니다. 생시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엄마를 잠 속에서라도 만날 수 있었던 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같이 자고 싶다며 조르는 모습을 여지없이 목격했기에 나는 오늘 아침도 우울한 기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긴, 자주 있는 일이라 영~ 새삼스럽지는 않구요.

엄마는 1980년대 산업화 시절의 전형적인 주부의 모습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지요!

완고한 할머니 모시며 직장 일이 전부인 아버지를 내조하면서 자식 다섯의 학업을 뒷바라지하셨던, 그 시절 억척같은 대한민국의 어머니임이 분명하셨습니다.

색바래진 결혼사진 속에는 여리고 고왔던 우리 엄마의 고왔던 젊은 순간도 분명 있었을 터-,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기억하는 당신의 모습은 남자들의 손보다 더 투박한 흑갈색 무늬 손이 먼저입니다. 모든 거친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해내고야 마는, 어쩌면 저돌적인 ‘불도저’의 인상만 강렬할 따름입니다. 어떠한 버겁고 어려운 일이라도 엄마라면 무조건 감당할 수 있는 천하무적의 가능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당연히 알고 지냈거든요!

그 흔한 “힘들다”는 표현조차 엄마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엄마니까 늘 바쁘고, 엄마니까 가장 곤란한 일만 하셔야 하고, 엄마니까 여러여리한 여성의 고운 얼굴 정도는 사라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과업(科業) 진행에만 충실하시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의 영원한 지주목(支柱木)으로만 존재

하실 줄 알았던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늙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자식들 모두 소위 남들 부러워하는 상위 대학과 그럴듯한 직장, 든든한 배우자로 연결되는 최강라인(?)으로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주신 이후부터였을 겁니다. 이제까지 강건했던 우리 엄마의 그것과는 정반대로 전혀 낯선 신체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셨습니다. 그동안 펼쳐셨던 당신의 위력이 폭폭 꺼져가며 늘어나는 주름 수에 비례하여 점차 꼬부랑 허리로 신체의 중심을 힘없이 접어가셨습니다.

내가 엄마를 찾을 때는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으로 이기적이었던 이 딸은 긴 세월 성장하느라,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의식주가 불편해질 때는 여지없이 도우미로서의 엄마를 원했지요. 놀라울 정도의 해결력을 가진 엄마의 능력은 한 번도 내게 실망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부르면 금세 등장하셔서 모든 것을 정돈해 주셨으니-.

그러나 키가 작아진 이후의 엄마는 더는 내가 필요로 했던 그분이 아니셨습니다.

접힌 허리 탓으로 짧아진 몸만큼 더 보잘것없는 할머니, 내게는 따~악 그뿐이셨습니다. 아쉬울 때 당신을 찾을 이유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라던 ‘수행 전담사’로서의 엄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대신 이제는 당신이 자식들을 찾으셨지요. 마치 평생 베푸신 의식주의 필수 요건을 되돌려 보상받으시려는 것처럼-.

엄마에게서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이 사라졌다고 여긴 탓이었을까요? 어쩌면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은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몸쓸 내 속마음이었을 성도 싶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가 나를 찾는 횟수의 몇 분의

몇 어치도 안되는 만큼의 방문으로만 반응했던 나, 말 그대로 완전한 불효녀였답니다. 코로나19로 만남을 자제하는 시기에는 구실이 더 좋아져 엄마를 찾아뵙지 못하는 이유로 삼아 그럴듯하게 합리화까지 해댔으니

“오늘 하루는 나와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이 세상사 마칠 무렵의 엄마는 늘 그렇게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좀 더 같이하고 싶다는 간절한 표현이었으되 나는 당신의 그 한 가지 소망까지도 습관처럼 무조건 미루었지요.

“나~ 곧 퇴임이유! 그때 넘치는 빈 시간은 죄다 엄마와 함께 하리이다~”

아마 적어도 그때의 내 대답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퇴임 후의 술한 여유시간 중에 설마, 까짓, 엄마와 하루 자게 되는 기회 없을까 봐!

온 대지를 뜨겁게 달구며 기세등등했던 여름이 ‘늦더위’라는 명목으로 어지간히 질리게 버티던 2020년 8월 말이었습니다.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에는 저도 도저히 어쩔 수 없었는지, 드디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염(老炎)의 계절만 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곧 맞이할 무심한 이 딸과의 하룻밤을 기대하며 마지막 힘을 다해 이승의 끈을 잡고 있던 엄마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바닥이 드러난 기운의 끝자락을 스크르 놓으며 끝물 더위를 안고 다음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

누군가의 말대로 진짜 거짓말처럼

그래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뚱맞게도 너무 늦은 지금에 와서야 인생의 소중한 시간에 대한 올바른 새로운 시간 셈법이 발동되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정말 시간을 귀중하게 썼습니다. 누구보다 공부 더하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버는 순간들이 내게는 가치 있는 삶의 방향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쓴 시간 덕분에 걸으로는 소위 ‘속세에서 성과를 이룬 자(?)’로 명명(命名)되어 있으니-.

그런데 허상(虛像)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은 전혀 계산되지 않은 속빈 강정 같은 삶을 추구했던 것! 언제든지 실천 가능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순간이 있다는 그 쉬운 진실을 왜 한 번도 따져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앞으로도 나는 ‘자고 가면 안 되겠냐’는 끝나지 않을 꿈속 엄마의 똑같은 질문을 계속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100% 부정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세(現世)에서만 가능한, 정작으로 소중한 금쪽 같았을 엄마와의 시간을 영원히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자고 가면 안 되겠니?”

“어떡하죠? 나는 엄마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한 번도 만들 시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못난 이 딸의 잘못으로 영영 가질 수 없는, 모든 기회를 흘려보내고 너무나 무한 뉘우침으로 후회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엄마.....”

당신의 일상에 스며드는 청렴문화

우리 공단은 청렴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수상의 영광을 누린 작품을 만나보자.

편집_추진수(청렴감사실)

청렴한
부산시설공단



윤문부 최우수상 수상작 <푸르른 빛(이웅선)>

푸르른 빛

금강공원사업소
이웅선

아침 7시 알람소리 울려 퍼진다
흰쌀밥 몇 숟갈 입에 넣고
옷 챙겨 입고 집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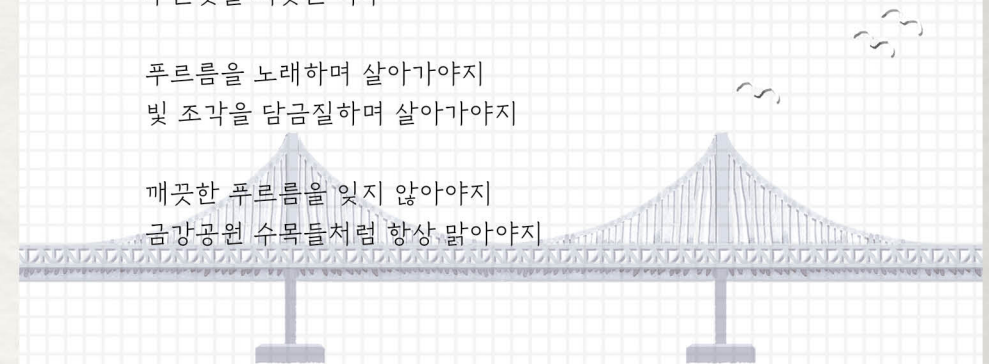
항상 보던 출근길, 익숙한 풍경
문득 생각에 잠기는 하루
매일 보는 광안대교 밑
푸르른 수평선, 금강공원 푸르른 수목들
어디에나 걸려있어 손사래 치던 푸른 빛깔들

세월 흘러도 출근길 빛깔들은 영롱한데
나는 지금 어딘가
바래진 빛 조각, 어느 샌가 잊고 지내던 푸른 가슴
내 가슴속에도 푸른빛의 노래가 울려 퍼졌었던 기억

첫 마음을 되찾은 출근길
푸른빛을 되찾은 하루

푸르름을 노래하며 살아가야지
빛 조각을 담금질하며 살아가야지

깨끗한 푸르름을 잊지 않아야지
금강공원 수목들처럼 항상 맑아야지





운문부 우수상 수상작 <흰색 운동화(원성준)>

흰색 운동화

중앙공원사업소
원성준

청렴은 흰색 운동화이다
한번씩 꺼내 신으며 때묻기 시작하면
걸잡을 수 없어지고 스스로 둔감해진다

어느날 꺼낸 흰색 운동화는
젖빛으로 물들었다
한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가짐은
나의 양심도 그리고 시민의 안전도
어느 순간 젖빛으로 물들인다

청렴은 흰색 운동화이다



운문부 장려상 수상작 <나무(황인준)>

나 무

남부지하도상가사업소
황인준

오늘 하루
화려하게 피고 지는 꽃보다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서 푸르른 나무이고 싶다

청렴의 뿌리를
내딛은 그 자리에서

일렁이는 바람에도
자그만 청렴의 씨앗을 날려 보낸다

오늘도 내일도
청렴의 새싹은 푸르른 나무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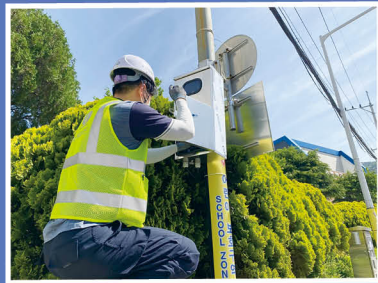


아무튼 출근!

비스코인의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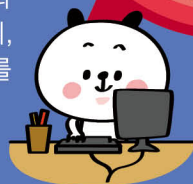


도로에서 공원까지. 우리공단의 사업은 넓고 직원들은 바쁘다.
다른 직원들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
오늘은 도시시설팀에서 열일하고 있는 최상재 직원의 하루를 함께 들여다 보자.
글·사진_ 최상재(도시시설팀)



오전 오후

출근과 동시에 전날 도시고속도로 차량 사고 유무부터 파악하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종합센터에서 어제의 특이사항들을 전달받은 뒤 도시고속도로 현장으로 나가 처리 후 터널과 도로에 전기가 안전하게 공급되는지, 다른 전기시설물들은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오후에는 전기시설물 보수와 사무업무를 주로 합니다. 도시고속도로는 하루 통행량 15만 대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예상치 못한 사고들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많습니다. 고객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피해시설물과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노후설비와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을 위험한 순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사무업무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잊을 수 없는 비상근무의 기억



지난해 여름, 부산에 큰 태풍들이 왔던 것이 기억납니다.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렸고, 부산시 모든 차도가 침수되어 겨우 사무실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도로에 침수, 축대 붕괴 등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했지만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시설팀에서 많은 비상 근무를 했지만 이처럼 정신이 없던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24시간 넘게 이어진 비상근무로 몸은 힘들었지만, 우리 팀원들의 노력으로 이용고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였다는 점은 뿌듯한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설비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정상 운전 중인 설비의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해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결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온 힘을 쏟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전기설비를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정비업무를 최적화하여 팀원들의 안전, 더 나아가 공단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덧 연말이다. 올해도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지속된 한 해 였지만, 백신 접종으로 위드코로나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높아졌다. 우리 공단 직원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위드 코로나 대비 여행지 물색

올해까진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자식 때문에 집에만 붙어 있어서 그랬던가,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너무 설렌다. 이제 그간 미뤘던 여행준비를 슬슬 준비해야 할 때. 여권 유효기간 확인하고 갱신 신청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들러 운전면허증+사진1장+수수료 1만원을 제출하면 국제면허증까지 발급 완료. 코로나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여행지가 많아졌다. 나 최혜인, 코로나만 끝나면 바로 한국을 떠날!

재무회계팀
최혜인

중부지하도
상가사업소팀
김다니

인생 네 컷

휴대폰 앨범엔 사진이 넘쳐나지만 셀카는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고.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나의 가장 젊은 날. 지금을 기억하기 위한 인생 네 컷을 찍어본다. 차려입거나 휘황찬란하게 꾸미지 않아도(사실 그게 더 촌스럽다) 일상의 행복한 웃음을 담은 사진이라면 두고두고 자주 보게 되는 것 같다. 누워서도 자꾸 미소가 새어나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추억 남기기 대성공!

문화생활 즐기기

아 테스트! 광클과 함께 성공했던 나훈아 콘서트가 취소되고 난 후 한동안 문화생활과는 담을 쌓고 지냈다. 그러나 연말엔 자고로 음악과 함께 해야 하거늘. 1년간 고생한 나에게 주는 값진 선물. 콘서트 플렉스 하며 가족과, 연인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 특히 1월 1일로 넘어가는 사이 콘서트는 스탠딩이 제 맛이라 카더라아~~~~

사회적가치
실현팀
김도경

디지털 다이어트

늘 긴장되는 연말 발령, 혹시 내가 연차휴가를 쓴 사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진 않을까 조마조마하다. 휴일근무에 날 잡아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디지털 다이어트. 업무용 사진으로 가득한 보관함은 톤 앤 매너를 맞추어 정리해주고, 내 PC 파일 정리도 빼놓을 수 없다. 눈이 어질한 바탕 화면 속 파일들을 외장하드에 옮겨 정리하고 나면 묵은 때를 벗긴 것 마냥 속이 후해진다. 갑자기 넉넉해진 용량에 속도도 빨라지는 것은 기분 탓인가.

총무인사팀
항유리

★ 꿈을 키우는 시간, 부산시설공단 청년 인턴을 소개합니다

우리 공단은 지역 청년에게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하였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영광스러운 우리 공단의 일원으로서 함께 했던 체험형 인턴들을 소개한다.

BISCO INTERN

청년 체험형 인턴 수료식

N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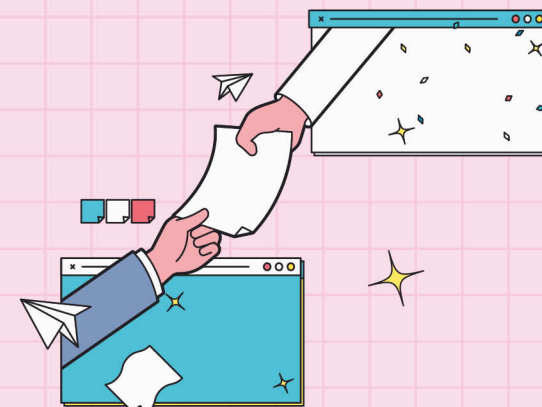
work



우리 공단 청년 체험형 인턴은 총 10명으로 행정직 5명, 기술직 (토목, 전기, 행정, 녹지)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류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임용되었다. 근무기간은 총 1개월로 공단 본사 뿐만 아니라, 광안대교와 시민공원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며 공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문제 해결 중심의 과제를 부여하고,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여 체험형 인턴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근무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발표회까지 진행하면서 체험형 인턴들이 직무 역량을 한 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12월 22일 진행된 인턴 발표회 현장에서 인턴들은 짧은 근무 경력 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발표 역량과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줘 우수 인턴 사원을 뽑는데 평가위원들이 많이 고심을 했다는 후문이다.

12월 24일 공단 인턴의 수료식이 열렸고, 결국 인턴 전원이 우수 인턴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미래전략팀에서 근무한 정지영 인턴직원은 “공단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를 통하여 그동안 잘 몰랐던 부산시설공단에 대해 알게되어서 뜻깊었고, 앞으로 진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동안의 소감을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에서의 한 달이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공단 청년 인턴의
앞으로도 멋진 비상을 기대한다.



부산시설공단,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인수!



주 소: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부산종합버스터미널(주)
전 화: 1577-9956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인수를 개시하였다. 부산시설공단은 2021년 9월부터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부산의 대표적인 육로 교통의 중심지로서, 부산시설공단의 인수로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1983년 온천동에서 부산고속버스터미널로 처음 개장하였으며, 2001년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확장하여 현재 노포동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11월 육상운송의 날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총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포시설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우리 공단은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내 점포 활성화와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고객센터 관련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총 304명이 응답하였다. 우리 공단은 지속적으로 고객 확보를 위하여 터미널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더욱 쾌적해지고 편리해질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의 모습을 기대해보자!

부산시설공단,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의 영예!



부산시설공단이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관왕(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대회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을 통해 정부혁신 성과를 공유하고자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인구 급감 등 어려움을 겪는 지하상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최초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단디쇼핑몰 운영, 무료 교육·홍보, 라이브 커머스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입점 점포의 매출 향상과 지하상가 경쟁력 강화 등 성과를 창출한 점에 대해 국민 및 전문가 심사단 호평을 받아 적극행정 최우수 기관(국무총리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해외 특허제품에 의존하여 불안정한 자재수급으로 적시 공사의 어려움을 겪던 영도대교의 초박층 포장재에 대해 지역기업과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특허출원에 성공하며 시민안전 확보, 해외제품 대비 40% 예산절감, 지역 강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도 얻었다.

공단 박인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그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설공단, 노사합동 온기나눔 연탄배달 봉사



부산시설공단은 12월 7일(화) 부산진구 초읍 원당골 일원에서 노사합동으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임직원 15명과 함께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박인호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최진욱 경영혁신실장과 김동우 노조위원장, 임영훈 노조 부위원장, 변인수 노조 사무국장 등이 함께 했으며 연탄 600장을 배달했다.

지계적재조, 지계조, 가정적재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이어진 연탄배달 봉사는 부산연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공단이 지난 2010년부터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정기봉

사 가운데 하나로 2020년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후원금 전달로 대체한 바 있다.

부산진구 성지로 74번길 초읍 원당골 마을에 집결한 공단 임원진과 간부, 직원, 노동조합 간부 등 15명은 원당골 6가구에 연탄 100장씩 총 600장을 배달하였으며 12월 중으로 부산진구 지역에 잔여 연탄 1,900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설공단, 10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부산시설공단이 12월 16일(목) 오후 4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일보사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한 해 동안 교육사랑 나눔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한 기관·기업·단체·개인 등을 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교육메세나패 수상에 이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연속으로 최고상인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하고 있다. 공단 박인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고상을 수상하는 24개 기관·단체, 교육메세나패를 수상하는 13개 기관·단체, 감사장을 받는 4개 기관·단체 및 내빈, 주최측 관계자를 포함해 50여 명만 참석하였으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실시간 방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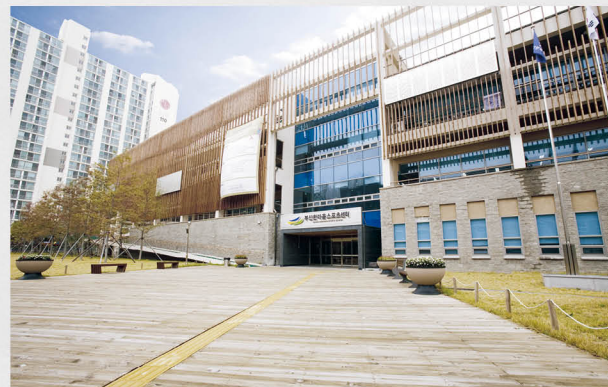
부산시설공단, 푸마코리아와 여자핸드볼선수단 후원협약 체결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가 안전경영인증을 획득했다.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표준모델의 발굴·확산 등을 위해 시설별 설치기준과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체육시설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인증 심사를 맡았다.

심사는 체육시설 안전경영 관리체계 분야 총 10개 항목, 안전·위생·시설 및 활동수준 분야 총 2개 항목, 관계자 안전 의식도 분야 총 3개 항목, 공통필수 4개 항목 등 총 4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진행되었다.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인증획득 이후에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로 시민 여러분께 서비스하는 시설로 거듭날 것이다.



세계적인 스포츠브랜드인 푸마코리아가 지역 핸드볼 육성을 위해 선수단 운동물품을 지원하게 되어, 공단은 예산 절감을 통해 선수단 복지 증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 날 협약식에는 공단에서 박인호 이사장 직무대행, 강재원 여자핸드볼팀 감독, 신창호 코치, 주장 심해인 선수, 핸드볼 주관 부서인 사회적가치실현팀 김강민 팀장이 참석했고, 푸마코리아는 라스무스홀름 대표와, 이승훈 차장, 이장원 사원 등이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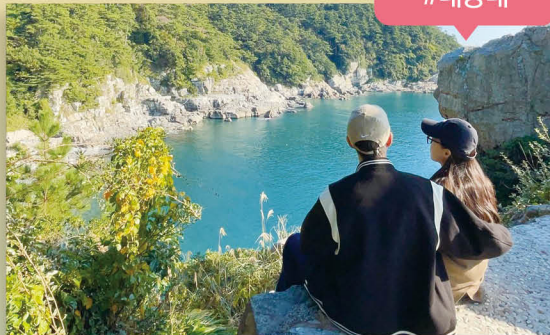
공단 박인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 종목의 지역 육성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핸드볼 활성화와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고, 라스무스홀름 푸마코리아 대표는 “우리나라 여자핸드볼 최정상팀을 후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어서 빨리 일상회복을 통해 보다 많은 팬들이 핸드볼 경기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NS 속 부산시설공단

우리는 SNS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만 인증샷으로 남긴다.
SNS 속 '#부산시설공단'은 어떤 모습일까?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시민의 삶에 스며든
부산시설공단 사업장의 다양한 모습들을 찾아보았다.

#태종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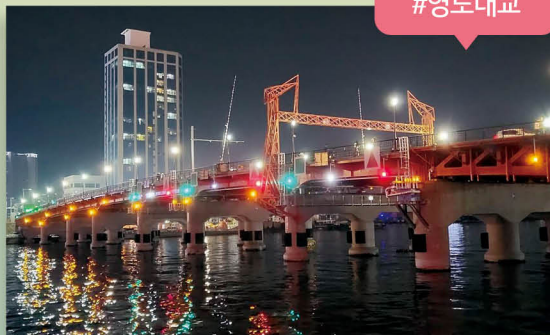
babi_bsy 태종대의 아름다움이 한 눈에 담기는 멋진 곳 북양개척
자비전망대 #부산태종대 #태종대유원지

#금강공원



cjylmw 오랜만에 #가족나들이 #오늘아침 큰딸 빠져서 아쉽 이제
백신접종완료 14일경과 #부산금강공원 어린이집 소풍으로도 가고 #추억
여행 #케이블카 도 타고 산책도 하고 기부니가 좋음 #가을하늘 미쳤음
#가을날씨 여름인가 싶게 덥고

#영도대교



cruiser_castle.h 2021년 11월 부산/대구역행 제4편 영도대교, 국제
시장(꽃분이네), 남포동 6.25 전쟁의 아픔을 담은 영도대교와 국제시장
#영도대교 #국제시장

#시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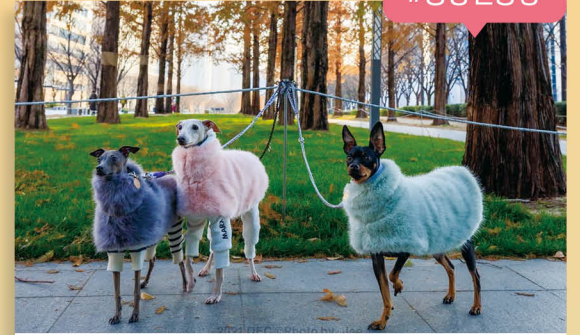
s0nstar 우리의 2년~ #시민공원

#추모공원



bae_kyoung_ho #행복한우리집 #다자녀그램 #삼남매 #쌍둥이
그램 #부산추모공원 #친할머니계신곳 #2주기 #잘계심 #햇별은쟁쟁

#송상현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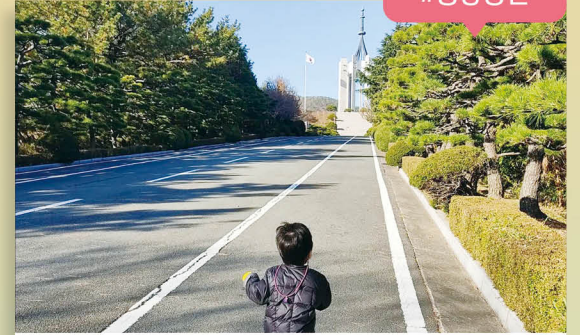
ggamji_jjury_bbeum 요즘 감지는...아싸 놀이중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아싸 감지 #송상현광장

#자갈치시장사업소



hyun_mini99 211124 부산여행 이틀째
어제는 신명나게 바람 불더니 오늘은 햇볕이... 나죽어...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영도대교 #원어울문화마을 #신세계중국집
#감천문화마을

#중앙공원



jun_love_un #중앙공원 #충혼탑
아직은 그래도 낮엔 다닐만한 날씨~~

#어린이대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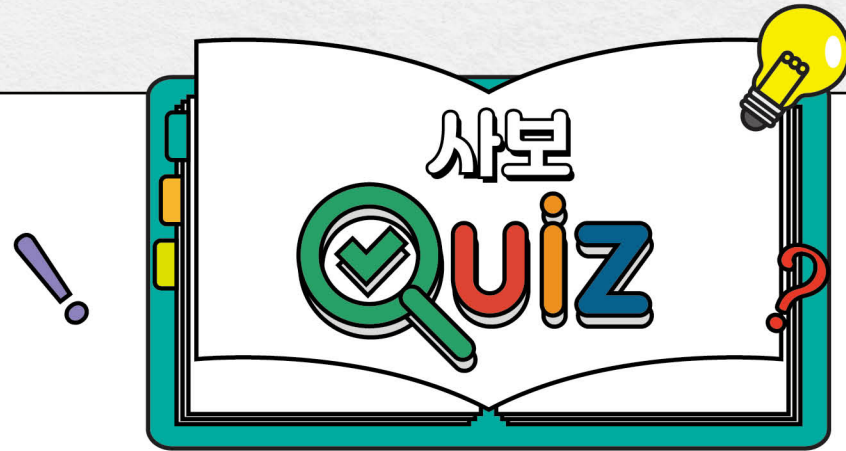
ruru_5004 오랜만에 온가족 백양산으로 등산~ 모두 힘든곳은 싫어
하니~선암사에서 어린이대공원으로 이어지는 능선타기~ 급 다녀온거
라~점심은 뜨거운물만준비해서~ 편의점 털기~~산에서 먹으니 워트
꾸르앗~♡ #어린이대공원

여러분의 추억을 공유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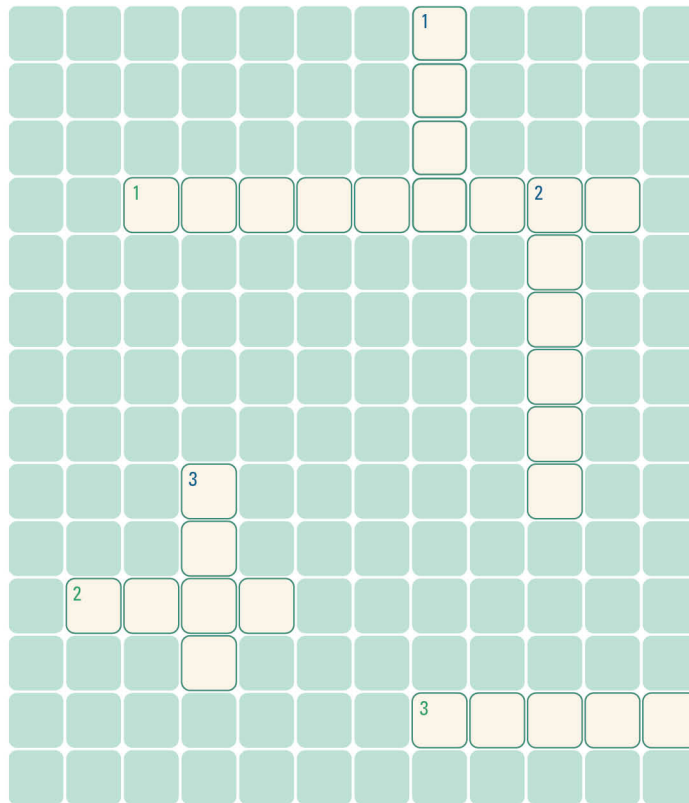
#부산시설공단 #인스타그램 #스토리발굴

인스타그램에 부산시설공단 사업장
(예) #부산시민공원,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등에서
인생샷을 남겨주세요!

발굴된 스토리에는 소정의 상품과
사보에 실리는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번 사보 86호도 재밌게 읽으셨나요?
사보를 열심히 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보 퀴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유 퀴즈~~~?



가로퀴즈

- 2021년 9월 부산시설공단에서 관리를 개시한 시설물로 부산의 대표적인 교통관문으로 불리며, 노포동에 위치하고 있다.
- 최근 공공기관 경영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공단은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 자체 ○○○○(한글) 경영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 공단이 운영 중인 지하도상가 온라인 쇼핑 몰의 명칭으로 최근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세로퀴즈

-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단어와 우주를 뜻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 크래시》에 처음 등장하였다.
-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 설치되어 있으며 좌우 엘리베이터 입면에 2개의 타워와 타워 사이 벽면에 LEG 브릿지를 연결한 세계 최초 좌우 비대칭 연계형 비디오 벽면
- 부산시설공단의 대표적인 시민참여플랫폼 명칭

* 2022 calendar *



시민과 함께한
30년
새롭게 도약할
내일

since 1992



부산시설공단